소비문화공간에 있어서 장소에 따른 용기정원의 특성

박은영*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Characteristics of Container Gardens according to Places in Consumption Culture Space

Eun-Yeong Park*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Geumsan 312-702,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ntainer gardens according to places by surveyed and analyzed container gardens in Garosugil in Shinsa-dong, Samcheong-dong and Seorae Village that are representative consumption culture places. The results showed that in Shinsa-dong, container gardens were most frequently found in fashion stores, as the region was first established as a fashion and design district. The gardens mainly used terra-cotta containers, greenish and evergreen plants, placing them at the entrance of the store to lead visitors' steps and serve as a fashionable decoration. In Samcheong-dong, most businesses used container gardens to give a sense of vitality to old and small spaces. The gardens mainly used pinkish flowering plants in rectangular containers, placing them in front bottom position to create a bright atmosphere. In Seorae Village, container gardens were frequently found in cafes and restaurants with outdoor terraces, reflecting the place's characteristics as a French-inspired village. The gardens mainly used warm-colored flowering plants and climber plants on racks and walls. Place has a contextual meaning that is based on culture and locality. As nowadays consumption culture places are actively creating container gardens, such gardens are also influenced by the contextual meaning, and this in tur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eveloping a sense of place.

Key words : City identity, Context of place, Green design, Sense of place

I. 서론

정원은 외부 공간을 단순히 푸르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이른바 '정서산업'으로 현대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치열하고 각박한 현대인의 삶 속에 휴식과 재충전의 필요성 및 자연에 대한 동경이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고 이른바 정원문화와 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 이상의 의미와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 진가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냐가 관건이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유를 가진 계층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는 차별화된 소비문화공간을 원하고 있으며(Park, 2011), 이러한 소비문화공간은 심미성을 전제로 하면서 로하스(LOHAS), 웰빙(well-being)과 같은 현대의 추세와 결합한 그린디자인(green design)의 개념

이 반영되어 식물을 이용한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Kim and Bang, 2007). 소비문화공간에서의 정원도입은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구매자의 재방문을 유도하며 건축물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완충시켜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소비문화공간의 정원조성은 땅이 부족한 도심에서 누구나 쉽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기정원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Park, 2011). 용기정원(container garden)은 지면에 식물을 심는 것을 대신해서 용기에 식물을 심어 즐기는 것으로 분(盆)식물 심기, 포트(pot) 정원, 윈도우 박스(window box), 플랜터(planter)나 벽걸이용 화분(hanging basket)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Kwon and Shim, 2010).

도시 속에서의 소비문화공간은 수많은 활동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 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간의 개념과 상호관계성이 첨가되면서 각기 다른 모습,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이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게 된다(Lee,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문화공

Received on October 15, 2012. Revised on November 12, 2012.

Accepted on November 15, 2012

*Corresponding author: eypark@joongbu.ac.kr

간 속에 나타나는 용기정원도 장소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소비문화공간으로 대표되는 신사동 가로수길, 삼청동, 서래마을의 세군데 장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용기정원을 조사, 분석하여 장소에 따른 용기정원의 특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소비문화 경향을 잘 반영하면서 밀집되어 생겨나고, 외부에 용기정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35개소), 삼청동(48개소), 서래마을(42개소)의 소비문화공간을 대상(Fig. 1)으로 하였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경우는 왕복2차로의 양옆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위치하고 있고, 에스모스(ESMOD) 파리의 서울 본고가 위치했던 것에서 유래하여 패션관련 업종이 가로수길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현재 가로수길은 패션 관련업종과 해외유명 브랜드샵을 기본으로 소비문화공간이 형성되고 있다(Lee et al., 2011). 삼청동의 경우는 90년대 대형미술관, 갤러리들이 옮겨 오면서부터 예술과 관련된 소규모 상점들이 들어서 소비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하여 독특한 개성을 담고 있는 다양한 소품들이 판매되고 있다(Kim et al., 2010). 서래마을의 경우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에 해당하며, 국내 거주 프랑스인의 약 40%에 달하는 인구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 프랑스 마을로 알려져 있다. 식사 및 음주를 위한 카페, 와인바, 레스토랑의 이용과 프랑스 마을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한 방문자들에 의해 소비문화공간이 형성되고 있다(Han et al., 2009).

Fig. 1. Map of three experimental places, Sinsa-dong, Samcheong-dong, and Seorae Village (from left to right).

세 군데 장소에 따라 용기정원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에 집중하기 위해 하나의 소비문화공간에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용기정원이 여러 개 반복되면 하나로 계산하고, 여러 종류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하였으며, 크기와 체적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장소에 따른 용기정원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연구(Seo et al., 2008; Kwon and Shim, 2010; Im et al., 2011; Park, 2011)를 기초로 하였고, 2012년 5월 4, 5, 6일에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의 기간이 길어지면 개화기가 달라지므로 최대한 단기간의 주말 동일한 조건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용기정원을 크게 업종, 위치, 용기, 식물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업종은 카페, 식당·술집, 패션, 미용, 기타로 구분하고, 위치는 입구(E), 전면하부(FB), 모퉁이(C), 벽면(W), 걸이(H)로 구분하였다(Fig. 2).

용기의 형태는 평면의 형태를 기준으로 원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반원형으로 구분하고, 색상은 어둡고 저채도이거나 재료 본연의 색을 가진 것을 자연색(natural color)으로, 이와 대비되는 것을 선명한 색(vivid color)으로 구분하였다. 재료는 플라스틱, 목재, 토기·용기, 도자기, 콘크리트, 기타로 구분하였다. 식물의 색상은 꽃이 있는 경우에는 꽃의 색을 크게 빨강, 오렌지, 분홍, 노랑, 보라, 흰색으로 구분하고, 조사한 계절에 꽃이 안 피어서 잎만 있는 경우는 녹색, 그리고 상록으로 구분하였다. 사용된 식물종류는 성상을 원예학적 특성에 따라 목본, 다년초, 일년초, 덩굴식물로 구분하였다(Seo et al., 2008; Yoon, 2010; Korea national arboretum, 2012). 이것을 바탕으로 장소에 따른 용기정원의 업종, 위치, 용기 형태, 색상, 재료와 식물색상, 종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2. Illustr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container garden by position as follows: entrance (E), front bottom (FB), corner (C), wall (W), and hanging (H).

Ⅲ. 결과 및 고찰

1. 장소별 업종과 정원위치

용기정원을 조성한 업종을 장소에 따라 살펴보면, 신사동은 패션(57.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청동은 식당·술집(37.5%), 패션(33.3%), 카페(25.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래마을은 식당·술집(42.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정원의 위치는 신사동의 경우, 입구(37.1%)가 가장 많았고, 삼청동(41.7%)과 서래마을(33.3%)은 전면하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업종별로 용기정원의 위치를 살펴보면, 신사동의 경우는 카페일 때 입구(33.3%), 전면하부(33.3%), 모퉁이(33.3%)가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식당·술집은 입구(42.9%)가 가장 많았고, 패션은 전면하부(4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청동의 경우는 카페(41.7%), 식당·술집(44.4%), 패션(43.8%)에서 모두 전면하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래마을은 카페는 걸이(33.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식당·술집은 전면하부(27.8%)와 모퉁이(27.8%)가 가장 많았다(Table 1).

이러한 결과를 고찰해 보면, 초기 패션학교와 디자인 계열 업종이 입점하면서 시작되어 온 신사동 가로수길은 강남의 젊은 여성들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대기업의 플래그십이나 해외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패션의 거리가 조성되고 그 바탕 위에 카페와 식당 등이 입점(Lee, 2010)하고 있는 장소적 맥락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식당·술집과 카페는 입구 쪽에 용기정원을 위치시켜 입구성을 강조하거나 유도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패션의 공간들은 디스플레이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면하부에 진열 상품과 조화되게 두어 패션 소품의 일부분이 되도록 활용하고 있다.

삼청동의 경우는 문화공간의 장소적 가치를 상품화 하는 장소자산(place assets)이 가장 먼저 뿌리내린 곳으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로서 독창성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Park, 2011). 신사동과 서래마을보다 규모가 작고, 낡은 공간이 많아 이를 보완하는 수법으로 식당·술집, 패션, 카페 등 입점한 대부분의 공간에서 용기정원이 나타났다. 여기에 어울리는 작고 귀여운 용기정원으로 시선을 가리지 않는 전면하부에 두었으며, 오래된 보기 싫은 것을 가리는 모퉁이에서 다른 지역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래마을의 경우는 주한 프랑스학교(Ecole Francaise de Seoul)가 이전하면서 조성된 프랑스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그와 연관을 맺는 음식점과 야외 노천식 카페가 많아(Han et al., 2009) 걸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식당·술집의 경우에서도 다른 곳과 달리 벽면과 걸이에서 많이 나타났다.

Table 1. Frequency of container garden position as influenced by place in Seoul and business type.

Place	Business type		Position(Freq.(%))					Total
			Entrance	Front bottom	Coner	Wall	Hanging	
Sinsa-dong	Cafe	6(17.7)	2(33.3)	2(33.3)	2(33.3)	0(0.0)	0(0.0)	6(100.0)
	Restaurant	7(20.0)	3(42.9)	9(0.0.5)	1(14.33)	2(28.6)	1(14.3)	7(100.0)
	Fashion store	20(57.1)	9(21.4)	18(42.0)	3(7.1)	4(9.5)	8(19.0)	42(100.0)
	Cosmetic store	0(0.0)	7(35.0)	8(40.0)	5(25.0)	0(0.0)	0(0.0)	20(100)
	Etc	2(5.7)	1(50.0)	0(0.0)	1(50.0)	0(0.0)	0(0.0)	2(100)
	Total	35(100.0)	27(21.6)	43(34.4)	39(31.2)	4(3.2)	12(9.6)	125(100.0)
Samcheong-dong	Cafe	12(25.0)	3(25.0)	5(41.7)	1(8.3)	1(8.3)	2(16.7)	12(100.0)
	Restaurant	18(37.5)	4(22.2)	8(44.4)	5(27.8)	0(0.0)	1(5.6)	18(100.0)
	Fashion store	16(33.3)	3(18.8)	7(43.8)	6(37.5)	0(0.0)	0(0.0)	16(100)
	Etc	2(4.2)	0(0.0)	0(0.0)	2(100)	0(0.0)	0(0.0)	2(100)
	Total	48(100.0)	10(20.8)	20(41.7)	14(29.2)	1(2.1)	3(6.3)	48(100)
Seorae Village	Cafe	9(21.4)	1(11.1)	2(22.2)	2(22.2)	1(11.1)	3(33.3)	9(100)
	Restaurant	18(42.0)	2(11.1)	5(27.8)	5(27.8)	3(16.7)	3(16.7)	18(100)
	Fashion store	3(7.1)	0(0.0)	1(33.3)	1(33.3)	1(33.3)	0(0.0)	3(100)
	Cosmetic store	4(9.5)	0(0.0)	2(50.0)	2(50.0)	0(0.0)	0(0.0)	4(100)
	Etc	8(19.0)	2(25.0)	4(50.0)	2(25.0)	0(0.0)	0(0.0)	8(100)
	Total	42(100.0)	5(11.9)	14(33.3)	12(28.6)	5(11.9)	6(14.3)	42(100)

2. 장소별 용기형태, 색상, 재료

용기형태는 신사동의 경우, 원형(71.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청동은 직사각형(54.2%), 서래마을은 원형(54.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위치에 따른 용기형태를 살펴보면, 신사동의 경우 원형이 입구(76.9%), 전면하부(70.0%), 모퉁이(77.8%)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삼청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입구에 있는 용기는 원형(60%)이 가장 많았고, 전면하부는 직사각형(90%)이 대부분이었으며, 모퉁이도 직사각형 용기(6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래마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면하부(57.1%)와 모퉁이(75%)에서 원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Table 2).

이것은 신사동의 경우 입구임을 강조하기 위해 원형의 용기를 양쪽에 대칭 배열하여 안정되고 위엄이 있어 보이도록 하였다(Kim and Wang, 2009). 전면하부는 작은 크기의 원형용기를 반복 배치하여 통일감과 함께 패션 소품으로 사용하였다. 삼청동의 경우 역

시 눈길을 끌고 입구를 강조하는 데는 원형의 용기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전면하부는 긴 선형의 직사각형을 사용하여 전체를 차폐하는 수법으로 이용하고, 모퉁이도 역시 차폐수법으로 사용하였다. 서래마을의 경우도 신사동과 같이 전면하부에 원형의 용기를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길이 만나는 모퉁이는 삼청동에 서의 차폐수법과는 달리 원형의 용기를 두어 시선을 유도하거나 공간을 분할한 것으로 판단된다(Kwon and Shim, 2010).

용기형태와 용기색상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신사동과 서래마을은 용기의 색상이 모두 자연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청동의 경우만 자연색(77.1%)과 선명한 색(22.9%)이 구분되어 나타났다(Table 3). 원형용기에서는 자연색(70.6%)과 선명한 색(29.4%)으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정사각형과 벽면, 걸이는 모두 자연색이었다. 선명한 색은 입구(10.7%)와 전면하부(9.1%)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신사동과 서래마을은 용기가 식물을 담은 그릇이라고

Table 2. Frequency of container shape as influenced by place in Seoul and container garden position.

Place	Position	Container shape(Freq.(%))				Total
		Circle	Square	Rectangle	Semi-circle	
Sinsa-dong	Entrance	10(76.9)	1(7.7)	2(15.4)	0(0.0)	13(100.0)
	Front bottom	7(70.0)	1(10.0)	2(20.0)	0(0.0)	10(100.0)
	Coner	7(77.8)	1(11.1)	1(11.1)	0(0.0)	9(100.0)
	Wall	0(0.0)	0(0.0)	1(50.0)	1(50.0)	2(100.0)
	Hanging	1(100.0)	0(0.0)	0(0.0)	0(0.0)	1(100.0)
	Total	25(74.4)	3(8.6)	6(17.1)	1(2.9)	35(100)
Samcheong-dong	Entrance	6(60.0)	0(0.0)	3(30.0)	1(10.0)	10(100.0)
	Front bottom	6(30.0)	1(5.0)	12(60.0)	1(5.0)	20(100.0)
	Coner	3(21.4)	2(14.3)	9(64.3)	0(0.0)	14(100.0)
	Wall	1(100.0)	0(0.0)	0(0.0)	0(0.0)	1(100.0)
	Hanging	1(33.3)	0(0.0)	2(66.7)	0(0.0)	3(100.0)
	Total	17(35.4)	3(6.3)	26(54.2)	2(4.2)	48(100.0)
Seorae Village	Entrance	2(40.0)	1(20.0)	2(40.0)	0(0.0)	5(100.0)
	Front bottom	8(57.1)	3(21.4)	3(21.4)	0(0.0)	14(100.0)
	Coner	9(75.0)	2(16.7)	1(8.3)	0(0.0)	12(100.0)
	Wall	1(20.0)	0(0.0)	1(20.0)	3(60.0)	5(100.0)
	Hanging	3(50.0)	0(0.0)	2(33.3)	1(16.7)	6(100.0)
	Total	23(54.8)	6(14.3)	9(21.4)	4(9.5)	42(100.0)

Table 3. Frequency of container shape as influenced by place in Seoul and container color.

Place	Container color	Container shape(Freq.(%))				Total
		Circle	Square	Rectangle	Semi-circle	
Sinsa-dong	Natural	25(71.4)	3(8.6)	6(17.1)	1(2.9)	35(100.0)
Samcheong-dong	Natural	12(25.0)	3(6.3)	22(45.8)	0(0.0)	33(77.1)
	Vivid	5(10.4)	0(0.0)	4(8.3)	2(4.2)	11(22.9)
Seorae Village	Natural	23(54.8)	6(14.3)	9(21.4)	4(9.5)	42(100.0)

인식하는 반면, 삼청동의 경우는 용기도 오브제로 생각하는 경향 (Park, 2011)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용기재료를 살펴보면, 신사동(42.9%)과 서래마을(37.5%)의 경우는 토기·용기가 가장 많았고, 삼청동은 목재(37.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형태와 재료를 살펴보면, 신사동(40%)과 서래마을(23.8%)은 원형의 토기·용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청동은 목재의 직사각형(37.5%)이 많이 나타났다(Table 4). 위치별 용기형태와 재료를 살펴보면, 입구(42.9%)와 모퉁이(31.4%)는 원형의 토기·용기가 가장 많았고, 전면하부는 직사각형의 목재(31.8%)가 많았다.

신사동과 서래마을의 경우 토기·용기를 식물을 위한 그릇으로서 정형식 패턴을 만들거나 전통적인 반복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 유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삼청동의 경우, 전면하부의 목재는 제작의 용이성과 가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형의 토기·용기는 입구를 강조하기에 좋은 용기이며, 모퉁이의 경우 토기·용기의 원형용기 중 규모가 큰 것은 차폐용과 유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면하부에 띠 형태로 장식하기에는 목재가 유리하다고 유추

할 수 있다.

3. 장소에 따른 식물색상, 종류

전체 용기정원의 식물색상은 녹색(26.4%), 상록(23.2%), 분홍꽃(20.8%), 빨강꽃(8%)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장소별 식물색상을 살펴보면, 신사동은 녹색(37.1%)과 상록(34.3%)이 많았다. 삼청동은 분홍꽃(27.1%), 녹색(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래마을은 녹색(23.8%), 상록(21.4%), 분홍꽃(21.4%)으로 나타났다(Table 5). 위치별 식물색상을 살펴보면, 입구는 상록(32.1%)이 가장 많고, 전면하부는 분홍꽃(2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퉁이는 녹색(45.7%)이 가장 많았다. 벽면은 분홍꽃(50%)이 가장 많았고, 길이는 분홍꽃, 흰색꽃, 녹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신사동과 서래마을의 경우는 용기의 색상에서 나타났던 자연색과 어울리는 녹색, 상록의 목본으로 입구에 많이 사용하였으며, 녹색이 주는 신선하고 산뜻한 색의 이미지와 더불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 추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삼청동의 경우는

Table 4. Frequency of container material as influenced by place in Seoul and container shape.

Place	Container shape	Container material(Freq.(%))						Total
		Plastic	Wood	Terra-cotta	Ceramic	Concrete	Etc	
Sinsa-dong	Circle	7(20.0)	0(0.0)	14(40.0)	4(11.4)	0(0.0)	0(0.0)	25(71.4)
	Square	1(2.9)	0(0.0)	1(2.9)	0(0.0)	1(2.9)	0(0.0)	3(8.6)
	Rectangle	0(0.0)	6(17.1)	0(0.0)	0(0.0)	0(0.0)	0(0.0)	6(17.1)
	Semi-circle	0(0.0)	0(0.0)	0(0.0)	0(0.0)	0(0.0)	1(2.9)	1(2.9)
	Total	8(22.9)	6(17.1)	15(42.9)	4(11.4)	1(2.9)	1(2.9)	35(100)
Samcheong-dong	Circle	7(14.6)	0(0.0)	9(18.8)	1(2.1)	0(0.0)	0(0.0)	17(35.4)
	Square	3(6.3)	0(0.0)	0(0.0)	0(0.0)	0(0.0)	0(0.0)	3(6.3)
	Rectangle	5(10.4)	18(37.5)	1(2.1)	0(0.0)	2(4.2)	0(0.0)	26(54.2)
	Semi-circle	0(0.0)	0(0.0)	2(4.2)	0(0.0)	0(0.0)	0(0.0)	2(4.2)
	Total	15(31.3)	18(37.5)	12(25.0)	1(2.1)	2(4.2)	0(0.0)	48(100)
Seorae Village	Circle	7(16.7)	1	10(23.8)	3(7.1)	0(0.0)	2(4.8)	23(54.8)
	Square	2(4.8)	2(4.8)	1(2.4)	0(0.0)	1(2.4)	0(0.0)	6(14.3)
	Rectangle	2(4.8)	3(7.1)	2(4.8)	0(0.0)	1(2.4)	1(2.4)	9(21.4)
	Semi-circle	0(0.0)	0(0.0)	0(0.0)	0(0.0)	0(0.0)	4(9.5)	4(9.5)
	Total	11(26.2)	6(14.3)	13(31.0)	3(7.1)	2(4.8)	7(16.7)	42(100.0)

Table 5. Frequency of plant color in container garden as influenced by place in Seoul.

Place	Plant color(Freq.(%))								Total
	Red	Orange	Pink	Yellow	Violet	White	Evergreen	Green	
Sinsa-dong	2(5.7)	1(2.9)	4(11.4)	1(2.9)	1(2.9)	1(34.3)	12(34.3)	13(37.1)	35(100)
Samcheong-dong	5(10.4)	3(6.3)	13(27.1)	4(8.3)	2(4.2)	3(6.3)	8(6.7)	10(20.8)	48(100)
Seorae Village	3(7.1)	0(0.0)	9(21.4)	5(2.4)	5(11.9)	5(11.9)	9(21.4)	10(23.8)	42(100)
Total	10(8.0)	4(3.2)	26(20.8)	6(4.8)	8(4.8)	9(7.2)	29(23.2)	33(26.4)	125(100)

Table 6. Frequency of plant color in container garden as influenced by position of consumption culture spaces.

Position	Plant color(Freq.(%))								Total
	Red	Orange	Pink	Yellow	Violet	White	Evergreen	Green	
Entrance	3(10.7)	3(10.7)	3(10.7)	0(0.0)	2(7.1)	1(3.6)	9(32.1)	7(25.0)	28(100.0)
Front bottom	7(15.9)	1(2.3)	11(25.0)	1(2.3)	4(9.1)	2(4.5)	9(20.5)	9(20.5)	44(100.0)
Coner	0(0.0)	0(0.0)	5(14.3)	4(11.4)	2(5.7)	2(5.7)	6(17.1)	16(45.7)	35(100.0)
Wall	0(0.0)	0(0.0)	4(50.0)	0(0.0)	0(0.0)	1(12.5)	2(25.0)	1(12.5)	8(100.0)
Hanging	0(0.0)	0(0.0)	3(30.0)	1(10.0)	0(0.0)	3(30.0)	3(30.0)	0(0.0)	10(100.0)
Total	10(8.0)	4(3.2)	26(20.8)	6(4.8)	8(6.4)	9(7.2)	29(23.2)	33(26.4)	125(100.0)

Fig. 3. Image of container gardens in consumption culture space. A: Sinsadong, container garden used terra-cotta container, greenish and evergreen plant, placing it at the entrance of the fashion store. B: Samcheong-dong, container garden used pinkish flowering plant in rectangular container, placing it in front bottom position. C: Seorae Village, container garden used in restaurant with outdoor terrace, warm-colored flowering plant on rack.

전면하부에 분홍색의 낭만적이면서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과 난색계열의 따뜻한 느낌(Kim and Wang, 2009)이 작고 오래된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용기정원의 식물종류를 살펴보면, 신사동은 남천(17.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삼청동은 제라늄(14.6%), 서래마을은 울마(9.5%)와 피튜니아(9.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별 식물종류를 살펴보면, 입구는 남천(17.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라늄(14.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하부는 제라늄(15.9%)이, 모퉁이는 동백(20%)이 가장 많았다. 식물의 형태와 크기는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므로(Kim and Wang, 2009), 남천과 울마 등 상록으로 형태를 통해 정원의 시각적 초점을 만들면서 세련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수종을 입구에 두는 경향이 있다. 전면하부는 봄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일년초 위주로 식재되고, 모퉁이는 차폐하기 좋은 상록이 선택되었다. 초화류들은 제라늄, 피튜니아 등 주로 개화기가 길고, 환경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시선을 끄는 화려한 느낌의 분홍꽃과 빨강꽃을 선호하였다. 벽면과 걸이에는 덩굴식물과 피튜니아가 많이 식재되어 있었다.

4. 장소에 따른 용기정원의 특징 고찰

소비문화공간에서 조성된 용기정원을 장소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장소와 용기정원을 조성한 업종의 관계에서 보면, 그 장소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가치관, 행동패턴, 역사적인 맥락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도시의 정체성과 장소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Im et al., 2011; Lee et al., 2011). 신사동의 경우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업종에서 용기정원을 패션 소품으로 이용하면서 활발히 조성하고 있었다. 서래마을은 야외 테라스의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삼청동은 소규모의 낡고 오래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점주들이 직접 꽃을 가꾸는 데 매력을 느끼는 형태(Park, 2011)로 모든 업종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 소비문화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기정원은 가로경관과 장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고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을 유발하여 사람들이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인식하는 그 장소만의 독특한 장소성(sense of place)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and Hwang, 1997).

둘째, 장소에 따른 용기와 식물의 사용에서 보면, 용기의 형태는 놓인 위치와 관계가 있으며 차폐, 유도, 분위기 조성, 공간 분할 등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Kwon and Shim, 2010). 용기의 색과 재료는 식물을 담기 위한 그릇일 경우와 오브제의 역할일 때가 구분되었다. 식물의 색은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은 용기의 형태와 위치와도 연관되고 있었다. 재료의 선택은 목본의 비율이 높으며, 초화류는 값싸고, 환경적응성이 강한 수종을 선택하였다. 신사동과 서래마을은 자연색의 용기에 상록과 녹색의 정형적인 형을 갖는 수종을 반복 배치하고 채도차가 작은 대비에서 오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느낌(Kim and Wang, 2009)으로 장소의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삼청동의 경우는 직사각형의 목재를 전면하부에 두어 낡은 건물을 가리면서,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시선을 방해받지 않도록 한 손님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 이때 주로 사용된 수종은 계

Table 7. Frequency of plant species planted in container gardens by place in Seoul.

Plant typ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Place(Freq.(%))		
			Sinsa-dong	Samcheong-dong	Seorae Village
Woody plant	<i>Buxus microphylla</i> var. <i>koreana</i>	회양목	1(2.9)		1(2.4)
	<i>Nandina domestica</i>	남천	6(17.1%)	2(4.2)	
	<i>Taxus cuspidata</i>	주목	3(8.6)		
	<i>Thuja orientalis</i>	측백나무	2(5.7)	1(2.1)	1(2.4)
	<i>Euonymus japonica</i> Thunb.	사철나무	1(2.9)		
	<i>Camellia japonica</i> L.	동백나무	2(5.7)	3(6.3)	2(4.8)
	<i>Sasa borealis</i>	조릿대	1(2.9)		
	<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철쭉	1(2.9)	1(2.1)	
	<i>Hydrangea</i> spp.	수국	1(2.9)	2(4.2)	3(7.1)
	<i>Kerria japonica</i>	황매화		1(2.1)	
	<i>Abies koreana</i>	구상나무			1(2.4)
	<i>Fatsia japonica</i>	팔손이			2(4.8)
	<i>Spiraea cantoniensis</i> Loureiro	공조팝			1(2.4)
	<i>Rosmarinus officinalis</i>	로즈마리	2(5.7)		2(4.8)
	<i>Cupressus macrocarpa</i> ‘Goldcrest’	골드크리스트 올마	1(2.9)	3(6.3)	4(9.5)
	<i>Rosa</i> spp.	장미	1(2.9)	3(6.3)	
Annual plant	<i>Petunia</i> spp.	피튜니아	1(2.9)	2(4.2)	5(11.9)
	<i>Impatiens walleriana</i>	임파첸스	1(2.9)		
	<i>Viola</i> spp.	팬지	2(5.7)	2(4.2)	1(2.4)
	<i>Primula polyantha</i>	프리몰라	1(2.9)	2(4.2)	1(2.4)
	<i>Papaver</i> spp.	꽃양귀비		2(4.2)	
	<i>Bellis perennis</i>	데이지		3(6.3)	1(2.4)
	<i>Stellaria media</i>	아기별꽃		1(2.1)	
Perennial plant	<i>Sedums</i> spp.	새덤	2(5.7)		
	<i>Liriope</i> spp.	맥문동	1(2.9)		
	<i>Hosta plantaginea</i>	옥잠화		1(2.1)	1(2.4)
	<i>Iris</i> spp.	붓꽃		1(2.1)	
	<i>Phlox subulata</i>	플록스		1(2.1)	
	<i>Lavandula</i> spp.	라벤더			2(4.8)
	<i>Osteospermum</i> spp.	오스테오스퍼멈		1(2.1)	
	<i>Begonia</i> spp.	베고니아		1(2.1)	
	<i>Pelargonium</i> spp.	제라늄	1(2.9)	7(14.6)	3(7.1)
	<i>Senecio cruentus</i>	시네라리아		1(2.1)	
	<i>Chrysanthemum frutescens</i>	마가렛	1(2.9)	1(2.9)	1(2.4)
	<i>Viola mandshurica</i>	제비꽃		1(2.9)	
	<i>Agapanthus africanus</i>	아가판서스		1(2.9)	
	<i>Anthurium</i> spp.	안스리움	1(2.9)		
	<i>Gerbera jamesonii</i>	거베라		1(2.1)	
	<i>Leucanthemum x superbum</i>	샤스타데이지			3(7.1)
Climber plant	<i>Dianthus chinensis</i>	패랭이꽃			2(4.8)
	<i>Hedera helix</i>	아이비	2(5.7)	1(2.1)	3(7.1)
	<i>Ceropegia woodii</i>	러브체인		1(2.1)	
	<i>Senecio rowleyanus</i>	녹영		1(2.1)	
	<i>Euonymus fortunei</i> var. <i>radicans</i>	줄사철			2(4.8)
Total			35(100)	48(100)	42(100)

절감을 표현하는 초화류로서 분홍꽃과 빨강꽃이 가지는 밝고 화사한 분위기(Kim and Wang, 2009)를 적극 이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삼청동에서는 인조목의 사용이 한 군데도 없이 용기정원을 직접 가꾸기면서 향유하는 차별화된 장소성을 가지고 있었다.

IV. 적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소비문화공간으로 대표되는 신사동 가로수길, 삼청동, 서래마을의 세 곳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용기정원을 조사, 분석하여 장소에 따른 용기정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신사동 가로수길은 초기 패션과 디자인 계열이 입점했던 것에서 영향을 받은 패션업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원형의 테라코타 용기에 상록과 그린색의 식물을 이용하여 입구에 가장 많이 위치시켜 동선을 유도하며, 패션소품으로 활용하였다. 삼청동의 경우는 오래되고 규모가 작은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고루 나타났고, 목재의 직사각형의 용기에 분홍색의 초화류를 이용하여 전면하부에 많이 위치시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서래마을의 경우는 프랑스마을의 장소성과 관련하여 야외 테라스의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많이 나타났고, 길이와 벽면에서 난색계열의 초화류와 덩굴식물을 주로 이용하였다.

장소는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맥락적 의미로 현재 소비문화공간에서 활발하게 조성되는 용기정원의 특성 또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장소성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차후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용기정원이 재방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장소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 인용문헌

Han, S.M., S.B. Im, and B.H. Eom. 2011. A study on place identity in Seo-Rae Village: Focusing on comparison of sense of place

between inhabitants and visitor. J. Kor.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7(4):32-41.

Im, S.B., Y.H. Jeong, Y.S. Hue, Y.K. Kwon, J.S. Byeon, and H.S. Choi. 2011. A study on the types of experiences related to sense of place in cities. J. Kor.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9(6):46-56.

Kim, B.W., N.A. Kwon, and J.H. Gil. 2010. Analysis of commercial characteristics about the Samcheongdong-gil gentrification. Kor. Regional Economic Review 15:83-102.

Kim, J.M. and K.H. Wang. 2009. Floral design. Seoul:Iljinsa.

Kim, J.Y. and K.J. Bang. 2007. Five elements of green design in contemporary commerce spaces. J. Kor. Soc. People Plants Environ. 10(1): 74-84.

Korea National Arboretum. 2012. A field guide to trees & shrubs. 5th ed. Seoul:Geo Book.

Kwon, H.J. and M.S. Shim. 2010. The container gardner's bible. Seoul:Joy & Pleasure Press.

Lee, S.H. 2010. A study on activation factors of Garosu-gil in Sinsadong as a commercial street. MS Thesis, Univ. of Seoul, Seoul.

Lee, S.H. and K.W. Hwang. 1997. The ambiguous concepts of place and placeness. J. Kor. Planners Association 91:169-184.

Lee, S.H., G.C. Shin, and S.W. Yang. 2011.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livability factors of Garosoo-gil as a commercial street in Sinsa-dong, Seoul. Urban Design 12(6):77-88.

Park, E.Y. 2011. A Study on the design tends of container gardens in consumption culture spaces: focused on Samcheongdong-gil, Seoul. Bulletin of Kor. Soc. of Basic Design & Art 12(6): 180-189

Seo, J.N., G.Y. Choi, M.R. Heo, and C.H. Park. 2008. Pot and bedding plants. 2th ed. Seoul:Buminsa.

Yoon, P.S. 2010. Ornamental flower. 2th ed. Seoul:Kyo-hak Publishing Co.